



5·18 학살 진실 찾기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광주시 금남로 전일빌딩 10층 천정에서 계엄군 헬기에서 발사된 탄환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건물 10층 내부에서는 계엄군 헬기 사격에 의한 총탄 흔적 150여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과수, 전일빌딩 탄환 발굴 착수

10층 천정 관찰...내일까지 전·후면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8일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을 헬기사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기총조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탄환 발굴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이날 전일빌딩 10층 내부 탄환발굴 조사에 나서면서 "(발견된 탄환 생성 원인은) 헬기 사격이 맞다. 지금은 다음 단계로 기총조사(기관총 난사)인지, 소총사격인지를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과수 감청서에 적시된 호버링(hovering·정지비행) 사격(가능성)이 '표적 사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5·18당시 유혈진압에 나선 계엄군이) 무력시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 탄환발굴 작업은 지난해 조사 때 원형훼손 문제로 조사하지 못한 10층(옛 전일방송) 천정 공간에서 육안 관찰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올 초 "건물 최상층인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150여점의 총탄 흔적은 정치 상태(제자리 비행)의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과수 감청결과 발표 이후 천정 텍스 훼손 없이 형광등 기구만 뜯어내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탄환 발굴 작업은 이날 하루만 진행되며 30일까지 이틀간 건물 전·후면 외벽 탄흔 조사가 이어진다. 탄환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면 현장에서 총기 종류 등을 분석하고 파편으로 발견될 경우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시한다. /김형호기자 khh@

영어 첫 절대평가...국어·수학이 당락 가른다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난이도 예년과 비슷 자연계, 탐구 영역 변수로...6월1일 모의평가 시행

2018 수능 기본계획 발표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돼 100점 만점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올해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어, 90점 이상이면 누구나 1등급>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영어 영역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다. 절대평가 방식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모두 같은 등급을 받는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1등급은 100~90점, 2등급은 89~80점으로 10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진다. 20점 미만은 가장 낮은 9등급을 받게 된다. 현행처럼 문항 수는 45개이고 1개 문항당 배점을 2점이나 3점으로 한다면 4문제

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표지표에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년의 출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며 "6·9월 모의평가 때 학생들 반응 등을 봐서 예년의 출제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어 영역은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그대로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사 필수 응시>=지난해부터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만큼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영역은 변별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가운데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주요일정

| 주요업무 | 추진일정 |
|----------------|--------------------|
| 시행기본계획 발표 | 3. 28(화) |
| 시행세부계획 공고 | 7. 10(월) |
|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 8. 24(목)~9. 8(금) |
| 시험실시 | 11. 16(목) |
| 문제 및 정답 의의신청 | 11. 16(목)~20(월) |
| 정답확인 | 11. 27(월) |
| 채점 | 11. 17(금)~12. 6(수) |
| 성적 통지 | 12. 6(수)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과목 가운데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어·수학 변별력 커질듯, '쉬운' 영어 예단>=일선 고교 진학부장 및 입시전문가들은 절대평가가 도입된 점들을 들어 영어 영역 변별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득점자가 많아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모두 1등급을 받게 되는 만큼 상대평가(2017학년도 1등급 비율 4.42%)때보다 1등급 받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도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인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조정했고 학

교마다 등급간 점수차도 달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절대평가 전환'을 '쉽게 출제할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게 일선 고교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에, 절대평가 전환을 앞둔 점 등으로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수능시험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영어 표준점수 최고점(139점)이 3점 상승하는 등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국어·수학 등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대입 전형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국어 영역의 경우 지문만 두 페이지를 채워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수학도 자연계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의 경우 만점자가 0.07%에 불과했다. 일선 교사들은 올해도 이같은 난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광재 숙명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국어·수학·탐구 영역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연계에서는 과학 탐구 영역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평가원은 또 수험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김지유기자 dok2000@

곡성에서 또...끝 모르는 AI

오리농장 H5형 AI 바이러스 검출...3만마리 살처분

곡성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오리 3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곡성군 석곡면 한 오리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 중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최근 AI가 집중된 다슬기계열 농장으로 혈청형은 H5N8형이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2만2000마리와 반경 3km 이내 농장 1만 마리 등 모두 3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34건

의 AI가 발생했지만, 곡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1월 16일 해남을 시작으로 모두 33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가운데 15건이 다슬기계열 농장에서 발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뒤늦게 알려진 것은 금요일(24일)에 AI가 발생하면서 고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검역본부, 전국 시·도와 전남 시·군 등에는 제때 공문을 보내 전파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같은 국적 이주여성 등친 베트남 여성 구속

구례경찰은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들에게 높은 이율을 미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뒤 도주한 베트남 여성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 7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감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주여성들에게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후 지

난 1월 딸(6)과 함께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와 연관이 달고 있던 남편과 공조해 A씨를 귀국하도록 설득, 한국으로 들어온 A씨를 공청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빌린 돈의 일부를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송금했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이자 지급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4:24 해질 18:51 달출 07:13 달짐 20:09

다시 포근한 봄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다.

| 지역 | 날씨 | 기온(°C) |
|----|----|--------|
| 광주 | 구름 | 15~20 |
| 전남 | 구름 | 15~20 |
| 전북 | 구름 | 15~20 |
| 충청 | 구름 | 15~20 |
| 경상 | 구름 | 15~20 |
| 강원 | 구름 | 15~20 |
| 제주 | 구름 | 15~20 |

◇지역별 날씨(°C)

| | | | | | |
|----|------|------|-----|------|------|
| 광주 | 비온뒤맑 | 6/15 | 보성 | 비온뒤맑 | 4/13 |
| 목포 | 비온뒤맑 | 6/13 | 순천 | 비온뒤맑 | 6/13 |
| 여수 | 비온뒤맑 | 7/12 | 영광 | 비온뒤맑 | 4/13 |
| 나주 | 비온뒤맑 | 5/14 | 진도 | 비온뒤맑 | 9/12 |
| 완도 | 비온뒤맑 | 7/15 | 전주 | 비온뒤맑 | 5/14 |
| 구례 | 비온뒤맑 | 3/13 | 군산 | 비온뒤맑 | 4/15 |
| 강진 | 비온뒤맑 | 5/14 | 남원 | 비온뒤맑 | 3/13 |
| 해남 | 비온뒤맑 | 5/14 | 축산도 | 비온뒤맑 | 5/11 |
| 장성 | 비온뒤맑 | 5/14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바다 | 파고(m) |
|----|--------|--------------|
| 서해 | 앞바다 | 북~북동 0.5~1.5 |
| 남부 | 면바다 | 북~북동 1.0~2.5 |
| 남해 | 앞바다 | 남동~남 0.5~1.5 |
| 서부 | 면바다(동) | 남~남서 1.0~3.0 |
| | 면바다(서) | 남서~서 1.0~3.0 |

◇돌매

| 목표 | 간조 | 만조 |
|----|-------|-------|
| 여수 | 08:13 | 02:56 |
| | 20:32 | 15:18 |
| | 03:42 | 10:04 |
| | 16:04 | 22:24 |

◇주간 날씨

| 날짜 | 날씨 | 기온(°C) |
|--------|----|--------|
| 30(목) | 구름 | 15~20 |
| 31(금) | 구름 | 15~20 |
| 4/1(토) | 구름 | 15~20 |
| 2(일) | 구름 | 15~20 |
| 3(월) | 구름 | 15~20 |
| 4(화) | 구름 | 15~20 |
| 5(수) | 구름 | 15~20 |

◇생활지수

| | | |
|-----|-----|------|
| 관심 | 식중독 | 보통 |
| 자외선 | 낮음 | 피부질환 |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격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